

보도시점 2024.3.27.(수) 15:00
(2024.3.28.(목) 조간)

배포 2024.3.27.(수) 09:00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청년 연구자가 생계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일은 없어야... 정부와 대학이 함께 챙길 것”

- ‘제5차 R&D 미소공감’, 대학 연구부총장들과 ‘연구생활장학금(stipend)’ 논의 -
- 과학기술혁신본부-대학 R&D 협의체 출범, 정부-대학 간 긴밀한 소통 추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3월 27일(수) 오후, ‘제5차 R&D 미소공감’으로 서울대학교를 방문하여 국내 10개 대학*의 연구부총장들과 ‘이공계 연구생활장학금(stipend)’ 추진 방향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 고려대,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울산과학기술원, 포항공대, 한국과학기술원, 한양대 (가나다 순)

지난 3월 15일 처음 시작하여 벌써 5회차를 맞이한 ‘R&D 미소공감’은 ‘R&D 현장과 미래를 위한 소통을 하여,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가겠다’는 의미를 담은 과학기술혁신본부의 현장 방문 브랜드이다.

특히 이번 회의는 범부처 과학기술 정책을 담당하는 과학기술혁신본부가 대학 연구현장과의 교감을 확대하기 위해 구성된 ‘혁신본부-대학 R&D 협의회’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과학기술혁신본부는 본 협의체를 통해 주요 과학기술 혁신 의제에 대해 대학 현장과 정기적이고 밀접한 소통을 이어나갈 예정이며 그 첫 번째 의제로 이공계 연구생활장학금(Stipend*)이 논의되었다.

* 학생연구자들이 학업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가 안정적인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로써 미국, 영국 등 주요 과학기술 선진국에서 도입·시행 중

과기정통부는 ‘대한민국을 혁신하는 과학 수도 대전(2.16.)’을 주제로 열린 제12차 민생토론회 후속조치로 이공계 전일제 대학원생에게 매월 일정 금액(예: 석사 80만원, 박사 110만원)을 보장하는 연구생활장학금(Stipend)을 도입 추진 중이다

이날 간담회는 연구생활장학금 제도 설계 단계부터 대학 연구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담아내기 위해 마련되었다. 회의장에서는 이공계 대학원생 스타이펜드는 오랜 기간 과학기술계의 숙원이었던만큼, 정책의 안정적인 현장 정착과 발전을 위해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되었다. 특히 이미 스타이펜드 정책을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4대 과학기술원 참석자들도 각자 학내 현황과 제언을 나누었다.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혁신본부와 대학이 과학기술 혁신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이공계 학생들은 한국 과학기술의 미래이자 성장 동력인만큼 현장의 의견을 세심히 들어 제도를 설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간담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과평가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영은 (044-202-6920)
			담당자	사무관	정재식 (044-202-6921)
	연구생활장학금 (Stipend)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제도혁신과	책임자	과 장	윤성훈 (044-202-6950)
			담당자	사무관	조경태 (044-202-6958)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